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습니다.



제주항공 7C2216 여객기사고
희생자분들을 추모합니다
“깊은 위로와 애도를 표합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5년도 제15호

취임 한 달만에 '징계'

체육계 혁신 이끄는 유승민호, 한 달만에 발목 잡혔다

오진영 머니투데이 기자

지난해 대한민국 체육계는 전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

[기자수첩]체육계, 잃어버린 국민 신뢰 회복하려면?

허윤수 이데일리 기자

23일 올림픽파크텔서 제34차 스포츠정책 포럼

“스포츠 조직도 책임 소재 명확해야... 내부 감사 독립성 필요”

허윤수 이데일리 기자

미국 스포티코가 23일 발표한 역대 스포츠 선수 수입 순위

역대 스포츠 선수 수입 1위는 4조원 번 조던...우즈 2위

김동찬 연합뉴스 기자

서울 곳곳에 날씨와 관계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이 생겨나...

"비 내리는 날씨, 러닝 불가? 자치구 실내 체육시설로!"

김용완 조선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체육계 혁신 이끄는 유승민호, 한 달만에 발목 잡혔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취임 한 달만에 '징계'라는 암초를 만났다. 아직 유관기관의 최종 결정을 기다려야 하지만 최악의 경우 회장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나온다.

27일 체육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최근 대한탁구협회에 유 회장(전 대한탁구협회장)과 김택수 인천 국가대표선수촌장, 현정화 탁구협회 부회장, 서민성 한국초등학교탁구연맹 부회장 등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는 결정문을 보냈다. 김 선수촌장과 정해천 전 사무처장은 경찰에도 고발하기로 했다. 문체부에 탁구협회를 대상으로 한 기관 경고도 요청했다.

윤리센터는 이들이 '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해 인센티브를 받았고, 권한 남용과 직무태만 등 비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유 회장은 '직무태만' 혐의로 탁구협회 스포츠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만일 스포츠공정위가 자격정지·해임·제명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가 처분을 확정지으면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해 유 회장은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

유 회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22일 "스포츠윤리센터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징계 요구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체육계에서는 비인기 종목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면 인센티브 지급을 원천 금지하는 규정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되풀이된다. 현 규정대로라면 임원이 사재를 출연하거나 직접 후원을 유치하더라도 제대로 된 보수를 지급받지 못한다는 의미다.

다만 기성 체육계에 '혁신'과 '도덕성'을 강조하던 유 회장의 정책 추진 동력에는 일정 부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 회장은 당선 과정에서 체육회의 조직 개편과 투명성·공정성 강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 이기홍 전임 회장 시절 대한체육회의 횡령, 배임 등 혐의가 수면 위로 드러나며 직무 정지 통보를 받는 등 제기됐던 불공정과 부패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목표다.

이와 관련해 선거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했던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는 성명을 내고 "유 회장의 신뢰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조사 결과에 대해 진정한 사과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 회장의 앞에는 여전히 과제가 산재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36 하계올림픽의 전복 유치다. 올림픽 유치는 유 회장이 당선 직후 직접 개최 후보지를 발표하고 전폭 지지를 선언할 만큼 체육계의 최대 목표 중 하나다. 체육계 개편도 중요하다. 유 회장은 제2차 이사회에서 임원의 2회 이상 연임 허용 조항을 삭제하고 자문위원회를 31개에서 23개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규정도 통과시켰다.

이외에도 생활체육 활성화, 대한축구협회와의 갈등과 비인기종목의 균형 발전 등이 숙제다. 유 회장은 당선 초기부터 여러 공약 달성을 위해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정책 자문기구인 스포츠개혁위의 출범과 생활체육 동호인과의 접점 확대, 인프라 구축 등은 체육계 안팎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온다.

체육계 관계자는 "아직 공정위 결정까지는 시간이 남았지만 체육계 개혁과 동반 성장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며 "징계와 관련된 현안들을 잘 해결하고 책임있는 혁신을 이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자수첩] 체육계, 잃어버린 국민 신뢰 회복하려면?

지난해 대한민국 체육계는 전 국민에게 지탄의 대상이었다.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 선수의 작심 발언이 계기가 돼 조직 사유화와 비정상적 관행 등 체육계의 구시대적 병폐가 수면 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안세영의 비판 후 논란은 일파만파 했지만, 약 6개월의 시간이 흐른 지금 정작 누가 어떤 책임을 졌는지 묻는다면 답변이 머뭇거려진다.

스포츠계에 만연한 각종 비리와 불공정 문제는 책임 구조가 명확하지 않고 의사 결정 과정이 불투명한 데서 비롯된다. 시스템 부재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보니 책임질 사람을 가리기 힘든 일이 되풀이된다.

체육 관련 협·단체 등 스포츠 조직에도 금융권처럼 ‘책임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책임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의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 두는 제도로,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에 위임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구현한다.

황은숙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상무는 지난 23일 ‘제34차 스포츠정책 포럼’에서 “현재 스포츠 조직은 책임이 불명확하고 권한이 집중되며 외부 감시가 어려운 구조”라면서 “책임구조도 도입을 통해 역할별 책임, 실행, 감독, 자문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간 체육계는 괄목할 성장을 이뤄왔지만, 그 이면에는 선수 인권 침해, 조직 내 비리, 불투명한 의사 결정 등 구조적 문제들이 겹쳐이 쌓여왔다. 굵은 상처는 결국 터져버렸고, 이를 지켜본 국민의 실망감은 무척 컸다.

최근 선출된 체육계 리더들은 한목소리로 개혁을 외치며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그들이 외치는 ‘개혁’과 ‘신뢰 회복’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강력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어쩌면 책임구조도는 조직 구성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안전망일 수 있다.

“누구의 책임인지 물었을 때 더 이상 ‘모른다’는 답변은 나오지 말아야죠.” 황 상무가 포럼에서 힘줘 했던 말이 귓가를 떠나지 않는다.

“스포츠 조직도 책임 소재 명확해야... 내부 감사 독립성 필요”

스포츠 분야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을 위해 체육 관련 협·단체 등 스포츠 조직에 ‘책임 구조도’를 도입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은숙 법무법인 지평 경영컨설팅센터 상무는 23일 서울 송파구 서울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린 ‘제34차 스포츠 정책 포럼’에서 “현재 스포츠 조직은 책임이 불명확하고 권한이 집중되며 외부 감시가 어려운 구조”라며 “책임 구조도 도입을 통해 역할별 책임, 실행, 감독, 자문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조직 규정과 제도에 연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책임 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임을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을 말한다. 대규모 횡령, 배임 등이 잇따르자, 당국이 마련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방안이다.

황 상무는 “대한민국 체육계는 연이어 타진 인권 침해와 조직 비리 문제로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면서 “누구의 책임인지 물었을 때 더 이상 ‘모른다’는 답변이 나올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삼성생명)의 작심 발언과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황 상무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구조적 문제는 안세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체육계 전반이 안고 있는 문제의 축소판”이라며 “체육계가 구조적으로 바뀌어야 할 시점임을 알리는 경고”라고 언급했다.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논란과 관련해선 “스포츠 행정 전반의 내부 통제 부재와 책임 회피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체육 조직은 책임이 불명확하고 권한이 집중되며 외부 감시가 어려운 구조”라면서 “책임 구조도 도입을 통해 역할별 책임, 실행, 감독, 자문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를 조직 규정과 제도에 연계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황 상무는 책임 구조도 도입 외에 △내부감사 조직의 독립성 확보 △이해 상충 방지 제도화 △내·외부 제보 시스템 고도화 △독립된 제 3자의 점검 체계 마련 등을 통해 내부 통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포럼에서 성문정 한국스포츠과학원 스포츠정책연구실 수석연구위원은 “재도약을 노리는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체육회장 등 주요 단체장의 리더십이 바뀌고,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새 정부의 등장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변화 속에서 현장은 극심한 혼란이 우려돼 체육계 수장들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리더십이 제대로 구현되려면 체육단체, 산하 위원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새로운 리더와 임원진은 몸에 밴 익숙함부터 혁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대희 국립부경대 교수는 ‘스포츠 조직 운영의 이슈와 방향성’ 주제 발표를 통해 “체육단체 운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과 자율성의 균형”이라며 “각종 제도적 장치는 마련됐고 규제 중심의 환경은 구축됐으나 실제 예방이나 모니터링 시스템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체 운영의 자치권과 통제 △체육단체 통합과 사업 확대 △후원 활성화와 재정 자립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역대 스포츠 선수 수입 1위는 4조원 번 조던... 우즈 2위

역대 스포츠 선수 가운데 가장 많은 수입을 올린 선수는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미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스포츠 비즈니스 매체인 스포티코가 23일 발표한 역대 스포츠 선수 수입 순위에 따르면 조던은 현역 시절 및 은퇴 이후에 30억 달러(약 4조2천900억원)를 벌며 1위에 올랐다.

2위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로 19억1천만 달러, 한국 돈으로 2조7천억원 정도를 기록했다.

이 순위는 2024년 말까지를 기준으로 했으며 선수들의 활동 시기가 달랐던 점을 고려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액수를 따로 집계했다.

이를 반영할 경우 조던의 수입은 41억5천만 달러로 늘어나고, 우즈 역시 27억9천만 달러가 된다.

3위는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에서 활약하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포르투갈)다.

물가 상승률 반영 이전 수입이 18억3천만 달러, 반영 후에는 22억3천만 달러로 집계됐다.

미국프로농구(NBA)의 '킹' 르브론 제임스(미국)가 물가 상승률 반영 후 18억8천만 달러로 4위,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가 18억5천만 달러로 5위에 올랐다.

2016년에 87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아널드 파머(미국)와 85세인 잭 니클라우스(미국)가 나란히 6위와 7위다.

파머가 인플레이션 조정 후 수입액 18억2천만 달러, 니클라우스는 17억5천만 달러를 각각 기록했다.

8위부터 10위는 데이비드 베컴(축구·영국), 로저 페더러(테니스·스위스), 플로이드 메이웨더(권투·미국) 순이다.

상위 50위 내 여자 선수는 세리나 윌리엄스(테니스·미국)가 유일하게 40위에 자리했다.

윌리엄스는 우리 돈으로 9천420억원 정도인 6억6천만 달러를 번 것으로 집계됐다.

"비 내리는 날씨, 러닝 불가? 자치구 실내 체육시설로!"

서울 곳곳에 날씨와 관계없이 운동을 즐길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이 생겨나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서울시 최초로 경로당 안에 스크린 파크골프장(매봉시니어센터 파크골프 아카데미)을 만들어 주민들에게 선보였다.

30년 넘게 회원제로 운영되던 노후한 경로당을 전면 개방해, 60세 이상의 강남구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이다. 구의 세심한 배려에 시범 운영 기간에만 600여 명의 어르신이 파크골프장을 다녀갔다.

지난 3월부터는 전문강사를 초빙해 파크골프를 처음 접하는 주민들에게 강습을 해주는 ‘파크골프교실’을 열기도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점점 발길이 뜸해지던 오래된 경로당을 정비해 어르신의 취향을 반영한 아카데미로 바꾸고, 동네 상관없이 오셔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했더니 인기 시설이 됐다”고 말했다.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에는 실내 게이트볼장이 문을 열었다. 신길3동 주민센터를 새단장해 만든 이곳은 미세먼지나 우천, 폭설 등 날씨에 관계없이 쾌적한 운동이 가능하도록 꾸며졌다. 약 80평 규모로 정식 경기장의 4분의 1 크기지만, 소규모 경기나 기술 연습에는 적합하다.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완하고 주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돕기 위한 공간으로 제격이다. 향후 친선경기, 토너먼트 대회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열릴 예정이다.

강북구(구청장 이순희)는 실내 스크린 파크골프장의 조성을 추진 중이다. 기존의 구 소유 건축물인 강북종합체육센터의 유휴공간을 활용하기로 했다. 강북종합체육센터 지하 1층에 조성될 스크린 파크골프장에는 개방형 타석 2개와 휴게 라운지, 커뮤니티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파크골프를 처음 접하는 주민들을 위한 강좌도 열리며, 최신 디지털 시스템을 도입해 초보자부터 전문가까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코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주간 스포츠 소식

김도영 '파워' 스포츠음료 모델 꿔챘다

<https://sports.khan.co.kr/article/202504280816003?pt=nv>

스포츠클라이밍 서채현, 월드컵 2차 대회 공동 1위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8_0003155721

'겨울 스포츠의 꽃' V리그, 새 타이틀 스폰서 구한다

<https://isplus.com/article/view/isp202504280056>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제5기 졸업식 개최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428000446>

목포시, 생활체육대축전 성공 개최로 도시 브랜드 향상

<https://view.asiae.co.kr/article/2025042813431612268>

인제대·가야대·김해대, 스포츠 교류전... "올시티 캠퍼스 실현"

https://www.nocutnews.co.kr/news/6331456?utm_source=naver&utm_medium=article&utm_campaign=20250428015946

고령군, 장애인 평생교육 스포츠 교실 '술런' 운영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27_0003155085

한국체육학회, 스포츠주간 기념 학술대회 개최

<https://www.yna.co.kr/view/AKR20250426046700007?input=1195m>

스포츠, 오락, 미식... 한국 야구장에 없는 게 없다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5/04/26/2Z5TVSD3EBBGPBDOM42BI6U5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https://www.sportscm.org/%ED%9B%84%EC%9B%90%ED%95%98%EA%B8%B0>